

대구은행 본점



조 용 태
〈기획부 과장〉

영남의 중앙부 금호강과 낙동강의 합류점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사과 산지로 더 유명한 도시, 대구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은행 본점을 찾았다.

이 은행은 1967년 10월 7일 창립하여 지난해 30주년을 맞이했고 현재 206개 영업점, 자본금 3,165억으로 21세기 초일류 은행이 되기 위해 고객 가치창조, 사회공헌, 인간존중, 경영의 질 중시의 경영이념하에 3,200여명의 대형은행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은행감독원이 실시한 경영평가에서도 94년, 95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AA를 받았고, 은행 평가의 국제적인 기준 BIS 비율은 97년말 IMF 기준으로 11.25%를 달성함으로써 국내은행권중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으로, 이번 탐방은 화재보험협회 대구지부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반 사항

대구 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번지에 소재한 대구은행 본점은 지하 2층, 지상 18층, 연면적 2만9천3백85제곱미터인 본관과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6천8백68제곱미터의 별관건물이 공히

내화구조인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있고, 주차설비로 15단 175대 패킹 셔틀식 주차 타워로 되어있다.

◎방화시설

방화시설로는 기초소화설비인 소화기 105개가 각층별 용도에 맞도록 비치 되어 있었고, 옥내 소화전이 46개소, 스프링 클러 프리액션밸브가 33개소, 포소화설비(수성막포)와 할론가스 소화설비가 용도에 맞게 설치 운영되고 있다.

경보설비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감지기 숫자만도 1,28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건물에 비상방송설비 설치로 유사시 즉각 비상방송이 가능한 체제로 되어 있었다.

피난구유도등을 비롯해 비상조명설비 등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었고, 소화용수설비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어 최고수준의 방화관리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방화관리 및 조직현황

안전관리실 직원 30여명중 전문 전담요원 3명에 청원경찰 12명과 용역 경비원 9명이 방화관리에 빈틈없이 관여하며 이외에도 층별 화기 단속책

임자를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 직장 자위소방대가 256명으로 편성되어 민방위 훈련과 병행하여 소방훈련을 하며, 평소 훈련시에도 실제 상황을 부여해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경영진의 소방, 방재에 대한 관심

어느 조직이든 경영진의 관심 여부가 큰 영향을 준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로써 이에 관해 알아보니, 행장님을 비롯 전 임원은 물론 부서장까지도 소방안전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불조심 생활화를 강조하며 사고없는 안정된 직장만들기에 중점을 두어 시설물의 현대화와 유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었다.

◎화재 예방업무에 대하여

실무 책임자(기술역 이경태)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화재 예방이 최상책으로 전사적인 불조심 생활화를 들면서 차례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관리, 소방교육과 훈련실시로 대응력 배양, 건축설계시부터 인명과 안전을 위한 완벽한 시공, 방화구획 및 건축 자재의 불연화, 끝으로 관계규정보다도 장래를 대비한 여유있는 시설 설치까지, 그야말로 전문가답게 빈틈 없이 표현해 내었다고 생각되었다.

◎안전관리 해오면서 느낀점

자원의 빈약 등 어려운 상황하에서 이룩한 경제 성장을 단순간의 실수로 한꺼번에 많은 것을 잃게 될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불조심에 대한 의식 개선과 더불어 선진국민이 되어야 하며 고도의 기술개발을 방화관리에도 적용하여 선진 소방 안전을 구현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일례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가인 일본도 고오베시 지진 발생 때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을 들어 우리도 남의 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라 했다.

방화관리는 책임과 의무가 너무 무거워 누구나 담당하기를 꺼려하는 업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우리 협회와의 업무 관계

건물 준공후 매년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물론 필요시마다 우리 협회의 자문과 협의를 통해 시설유지관리 및 보관을 해 왔다고 하며, 오랫동안 유대관계가 지속되었고, 상호 신뢰 속에서 일해 왔음을 느낄 수 있었고, 화재보험협회가 실시하는 자체점검도 세부적인 기술지도 및 합리적 점검비용 등 좋은점이 많았다고 하며 지속적인 일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끝으로 대구은행 자랑을 들어보기로 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초일류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약진해 가는 은행으로서 수익의 사회 환원사업 일환으로 91년 장학재단을 설립 3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의 중·고·대학생 1,149명에게 8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최근에는 약 30억원을 들여 대구 명소인 경상 감영공원을 단장하는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하였고, “낙동강 사랑 신탁”, “유니버시아드 지원 통장”, “지역경제 살리기 통장” 등의 상품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안전관리실은 전국 민방위 시범훈련과 수많은 대구 광역시 시범훈련 등으로 제33주년 소방의 날, 직장 자위소방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무부장관 표창과 97년 보안업무 및 우수기관 표창장 수상, 제35주년 소방의 날 우수 방화관리자로 선정된 이경태 기술역 직원이 내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의 예에서도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없음을 느꼈다.

사고 없는 은행, 초일류은행이 되기 위해서 각 분야 최고 권위자가 되기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는 직원들의 자세에서도 초일류 은행으로 도약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어 무한한 부러움을 느끼며 최고의 찬사를 보낸다. ☺